

우리 출판학과 이렇게 다르다

◎ **계원조형예술대학 출판디자인과** 이기성 교수

출판디자인에 무게 실어 선진출판 양성자 기른다

최근 2003년도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학술부문이 선정 발표되었다. 단순한 대학교재나 개론서를 제외시키고 학술성을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선정의 변은 어려운 학술출판의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임을 알 수 있다. 가뭄의 단비와 같은 이러한 지원정책은 학술출판을 주로 하는 일선 출판사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 일회적인 정책지원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 출판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학술출판은 무엇이며, 진정한 학술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아카데미와 연관된 단어의 의미변화를 찾아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현재 우리의 언어사용에서 계원조형예술대학 출판디자인과는 1995년에 전자출판과로 시작하여 전자출판디자인과로, 그리고 현재의 출판디자인과로 차례로 학과명칭을 바꿨다. 학과명칭은 변하였지만, 3대 출판 매체인 종이를 최종 출력매체로 한 종이책,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CD-ROM이나 DVD에 출판하는 디스크 책,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웹진이나 전자책(eBook) 같은 통신망 화면책을 모두 다룬다. 또한 출판물의 생산단계별로는 기획·편집·제작·마케팅의 4단계를 전부 다 공부를 하면서도 과 이름에 걸맞게 교육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출판 디자인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 과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실기 강의 시간에 IBM PC와 매킨토시 두 종류를 다 실습하면서 한글과 Pagemaker, Flash, Quark Express를 익숙하게 다루도록 교육한다. 둘째는 출판기획, 출판 마케팅 분야보다는 출판편집·출판제작 단계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체가 다른 종이, 디스크, 화면책을 모두 디자인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우리 학과는 출판의 전통 매체인 종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출판물은 물론, 멀티미디어를 사용하

는 디스크책 출판 디자인과 인터넷 통신망을 매체로 사용하는 화면책 출판 디자인을 골고루 공부하여, 능력 있는 한국의 전문 출판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우리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현재 출판사, 디자인 스튜디오, 신문사, 기업체 홍보실, 광고회사, 기획회사, 컴퓨터그래픽스 회사, CD-ROM 디자인회사, 웹 디자인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로 진출하고 있다.

◎ **서일대학 정보출판과** 이은국 학과장

급변하는 출판계 흐름에 적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력 갖춘다

서일대학 정보출판과는 1991년 '인쇄출판과'로 출발하여 1992년 '출판과'로, 2000년에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교과목을 대폭 개편하면서 '정보출판과'로 개명하여 올해로 13년째를 보내고 있다. 본 과에서는 출판의 중요성과 소명의식을 길러주는 한편, 급변하는 출판계의 흐름에 적응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 매킨토시와 IBM을 활용한 quark, 포토샵, 일러스트, 표지 디자인 등 다양한 전자출판 기법을 연마시키고 있으며, 출판기획에서부터 마케팅·제작 분야는 물론 신문·잡지·대중문화와 매스컴 분야까지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임교수 2명(이은국, 김진두)과 출판관련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고 있으며, 진정한 출판전문인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미 배출된 졸업생 400여 명 중 60퍼센트가 넘는 250여 명이 편집·제작·마케팅 등 출판 관련 실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여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특히 서일대학 정보출판과는 교수와 학생들 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재학중에는 물론 졸업 후에도 다양한 모임을 가지고 대화와 정보교환의 장을 나누고 있다. 또한 학기 중에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에게 실무현장을 설명해 주는 졸업생 특강 시간도 활용하고 있으며, 출판 관련업계에서 지원하는 연간 400만 원 상당의 외부 장학금도 학생들의 의욕과 긍지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 **신구대학 출판미디어과** 이창경 교수

창조적 손을 가진 출판전문인 양성한다

신구대학 출판미디어과는 아이디어를 생산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실무중심의 출판전문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곧 창조하는 손을 지향한다. 온·오프라인 출판물의 편집, 디자인, 마케팅 등에 참여하여 출판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성실한 출판계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구 출판인 교육의 지향점이다. 우리 학과는 첫째 매체변화를 수용한 실무중심의 커리큘럼과 효율적인 교육시스템,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현장진출 동문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형성 등 세부 추진전략을 세우고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둘째로 온·오프라인 출판을 위한 충분한 실습시설을 갖추고 전공 스터디 그룹, 창업동아리 지원으로 심화학습을 꾀하는 한편, 1인 1출판사 갖기 운동, 분야별 출판모니터 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예비 출판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학과 설립 15주년을 맞아 출판교육의 연구와 온라인 동문재교육 등을 담당할 '신구출판교육정보센터' 설립, 동문과 재학생 출판 워크숍을 주로 하는 <신구출판 포럼21> 등을 설립 추진중에 있다.

◎ **혜전대학 출판미디어과** 김두식 교수


맞춤식 교육으로 취업률 1위 보장한다

혜전대학 출판미디어과는 5년 연속 100퍼센트 실질 취업률을 기록한 학과다. 그래서 취업률은 우리나라 전국 대학 학과 가운데 1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졸업생들이 전문가로서 완전히 뿌리를 내릴 때까지 현장방문 지도를 끊임없이 하는 등 철저한 취업관리의 결과다. 또한 2학년 2학기 중에 모든 졸업 예정자들이 취업 완료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혜전대학 출판미디어과는 우리나라 출판교육의 역사가 시작된 학과다. 국내 최초로 1982년도에 개설된 본과는 우리나라 출판 실무교육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이는 '아후 코리아' 백과사전에서 '출판 역사' 항목에 혜전대학 '출판미디어과'가 나타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혜전대학 출판미디어과는 최고·최적의 실습환경을 제공한다. A0 사이즈까지 편집 데이터 출력이 가능한 초대형 컬러 프린터를 비롯하여 최신형 G4 매킨토시를 갖춘 실습실, 초고해상도 실습용 디지털 카메라와 슬라이드 전용 스캐너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의 컴퓨터 편집실습을 위한 별도의 서버비용 등 최고·최적의 출판편집 실습 환경을 갖췄다. 우리 학교는 소수 정예로 교육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교수 1인당 15~20명 수준으로 대부분의 교육이 이루어

지므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교수와 학생들 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최고의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학과는 4년제 대학 편입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졸업예정자 가운데 4년제 대학에 편입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편입 희망 4년제 대학에 대한 정보를 입수·분석한 후 개별지도도를 통해 편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지도하고 있다.

◎ **혜천대 전자출판과** 이종국 교수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만능출판인 양성에 힘쓴다

혜천대의 전자출판학과는 1989년에 창설된 대전전문대학의 출판과를 그대로 이은 학과다. 우리 학과는 교수·학습 대상으로 삼은 매체의 종류를 서적, 잡지, 신문 그리고 멀티미디어 등으로 포괄영역을 설정하고, 그 생산과 이용에 관한 실질적인 방법을 체험적으로 터득케 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성취효과를 높여 애쓴다. 요컨대, 정보산업시대의 능동적인 대응 및 자기표현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이 학과의 교육내용 중 핵심목표이다. 교육과정의 운영은, 특히 직업기술 능력을 배양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출판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들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출판의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매체를 중심영역으로 설정하되, 그에 따른 이론과 실재를 현장성 있게 부과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모든 공포매체의 존재는 전통적인 출판으로부터 진화, 팽창된 것임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선택한 학습영역에 대하여 창의적 발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예컨대, 현실적인 부합성이 강한 매체별 편집, 출판광고·홍보, 에디토리얼 카피, 그리고 창작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고르게 조직해 놓은 것도 그러한 기본으로부터 출발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 요컨대, 아이디어의 실현과정이 기획능력이라면, 그것을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요건들이 현실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각론적 현상임을 중시하고, 그에 따른 학습능력을 배양케 해야 한다는 관점인 것이다. 그 동안 이 학과는 교수·학습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설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형 멀티실습실 2개실, 전용강의실만도 4개실을 갖추고 있으며, 최신형 컴퓨터를 1대 1 시스템으로 갖춰 놓고 있다. 이 학과는 또한 2004학년도부터 다시금 전향적인 출발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 학교 배열은 가나다순임을 밝힙니다.